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메타 분석:

1990~2014년 국내 12개 언론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

안수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박사과정)

민혜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박사과정)

장바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석사과정)

박재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본 연구는 한국의 언론학 관련 12개 학술지에 1990~2014년까지 25년 동안 게재된 논문 가운데 저널리즘 연구를 추출하고 이들의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매체, 근거 이론, 연구 함의 등을 학술지 별, 시기별, 저자 특성별로 교차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5년 동안 언론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저널리즘 연구 논문은 20% 정도이다. 둘째, 저널리즘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는 시기에 상관없이 '뉴스 콘텐츠'에 집중됐고 '뉴스 생산자' 및 '뉴스 생산 조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언론 역사' 연구가 크게 줄어들고 '뉴스 수용자' 연구가 급증했다. 셋째,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연구의 주요 대상은 여전히 신문이었다. 넷째, 1990년대에는 질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 양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를 이뤘다. 다섯째, 해외 연구, 국가 간 비교 연구, 통시 연구 등이 많지 않았다. 여섯째, 이론적 함의 또는 실천적 함의 가운데 어느 것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연구 논문이 많았다. 일곱째, 언론 경력에 있는 저자는 그렇지 않은 저자에 비해 뉴스 생산자 및 뉴스 생산 조직 연구에 더 관심이 많고 이론적 함의 또는 실천적 함의를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한마디로 '저널리즘 연구의 비대칭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어: 저널리즘 연구, 언론학 정체성, 메타 분석, 통시 분석, 학술지 논문

* 가감 없는 질척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hn@hani. co. kr

*** haeyoungmm@gmail. com, 교신저자

**** stone0331@naver. com

***** jaeyungp@korea. ac. kr

1. 서론

현대 언론학의 비조(鼻祖)로 불리는 라스웰(Lasswell, 1948)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S(송신자)-M(메시지)-C(미디어)-R(수용자)-E(효과) 모델'을 내놓고 각 단계에 상응하는 연구 영역을 '생산자 분석'(control analysis),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미디어 분석'(media analysis), '수용자 분석'(audience analysis), '효과 분석'(effect analysis) 등으로 구분했다.

한국 언론학 역시 1970년대 이후 이 모델을 중심으로 미디어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행동과학적 사회과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학문'이라는 정체성을 굳혔다(김규환, 1983; 양승목, 2005).

그러나 최근 한국 언론학에서 S-M-C-R-E 모델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임영호(2013)는 한국 언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 언론학이 S-M-C-R-E 모델에 의존해 '미세한 벽돌쌓기식' 지식 추구에 주력한 나머지 학문 탐구의 장기적 목표인 이론적 체계의 정립에 관해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남궁협(2013)은 S-M-C-R-E의 고전적 모형을 학문의 핵심적 준거로 삼아 실증주의 방법론에 경도된 탓에 한국 언론학이 현실의 문제에 별다른 설명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영(2014)은 S-M-C-R-E 모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론학 내부의 많은 하위 영역이 각각 독자적으로 확장하는 원심력으로 인해 언론학의 정체성이 점점 더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학의 위기에 대해 각 연구자가 내놓는 해법의 방향은 각각 다르지만 언론학 하위 분과별로 파편화·단편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학이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간다는 기왕의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연구 주제·방법론·연구자·연구 함의 등에서 기존 연구가 어떤 특성을 띠는지 밝히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국 언론학 연구가 파편화·단편화 등에 빠져든다고 지적하려면 어느 영역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진행하려는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의 모든 분과를 아우르기보다는 '저널리즘 연구'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 저널리즘 연구에 뿌리를 둔 언론학이 각종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외연 확장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정체성이 오히려 모호해졌다면(유선영, 2014) 정체성 논란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언론학의 기초에 해당되는 저널리즘 연구의 지형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저널리즘 연구에서 연구 주제별로 과잉 연구와 과소 연구가 엇갈리는 ‘비대칭성’이 언론학 정체성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 연구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왜 저널리즘 연구자가 언론학 정체성 문제를 주로 제기하는지, 저널리즘 연구 진영 내부에서 비롯한 문제는 없는지 등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널리즘 연구 현황을 중심에 두고 한국 언론학의 지형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에 깊은 영감을 준 것은 2009년 발표된 ‘한국 언론학회 미래위원회’ 보고서 <언론학 교육의 길을 묻다>와 그 후속 작업으로 2014년 발표된 ‘한국 언론학회 언론교육위원회’ 보고서 <언론학 교육의 혁신 모델>이다.

한국언론학회 차원에서 마련된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학 교육 패러다임의 일대 변환을 촉구했다. 다만 ‘언론학 교육’의 방향전환을 제시했을 뿐 ‘언론학 연구’의 지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나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언론학 교육의 핵심 질문이 ‘우리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는가’에 있다면(강명구, 2009) 그 교육을 담당하는 언론학자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질문은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복잡다단한 언론 현실에 적응할 새로운 커리큘럼을 갖춰 교육한다는 것은 이를 담당할 교육자의 연구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구 활동에 대한 분석은 교육 활동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언론학이 저널리즘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펼쳤는지 살펴야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학 교육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언론학 관련 학술지가 각종 연구 논문을 본격적으로 양산한 1990년 이후 2014년까지 25년 동안 저널리즘 연구와 관련된 국내 학회지를 망라하여 여기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특성을 종합적·통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 문헌 검토

1) 언론학 정체성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언론학이 여러 인접 학문의 전통을 수용하여 형성됐고 이에 더해 변화무쌍한 언론 현실에 조응하려는 노력을 거듭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종 교배’는 언론학이라는 새 학문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학문 다원성을 확장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일제 시절 도입된 ‘신문학 전통의 저널리즘 연구’가 195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60년대 들어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등장했고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언론학이 고전적 의미의 저널리즘 연구에 비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문종대, 2001; 송우천, 2001; 양승목, 2005; 김영희, 2012).

연구 영역을 넓혀간 결과, 한국 언론학의 지형도 복잡해졌다. 언론학을 일컫는 명칭에도 복잡한 학문적 지형이 반영돼 있는데, 언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국내 학계가 합의한 명칭이 없어 각 대학별로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언론광고학, 언론홍보영상학, 미디어 콘텐츠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김성해, 2014).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언론학의 정체성을 논구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관련 연구를 크게 나눠 보자면, 언론학의 하위 분과 간 교류를 확대하여 ‘통섭의 학문’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과 언론학의 뿌리인 저널리즘 및 언론 현실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하자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대표할 만한 여러 연구 가운데 임영호(2009, 2013)는 뉴미디어와 디지털의 등장으로 언론학의 연구 영역이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회과학이 이 영역에 속속 뛰어들면서 오히려 언론학의 ‘고유한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연관된 연구가 철학, 문학, 사회학, 정치학 등을 망라하는 가운데 언론학이 이들 학문과 차별화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론적 흐름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선영(2014)은 계량화 연구를 통해 단편적 정보만 제공하는 연구 풍토에 따라 언론학의 정체성을 둘러싼 회의론과 비판론이 반복되며 학문 공동체다운 공통의 문제 틀과 관점, 행동과 감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언론학이 침묵에 빠져든다고 진단하고 분업화된 지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사회적인 지식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궁협(2013)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언론학이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경도되어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을 잃어버렸고 실용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용지물인 상황이 됐다고 보고 사회과학적 모델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전복을 통해 언론학을 완전히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련의 ‘통합 과학’을 추구하는 이런 연구와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언론 현실’에 대한 학문적 실천력 확보를 요청하는 입장이 있다. 이를 대표할 만한 여러 연구 가운데 조항제(2014)는 언론의 자율성 · 공정성 · 다양성에 대한 연구, 권력화된 언론에 대한 감시,

위축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발 등 학문의 비판적 실천이 필요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찍이 안광식(1989)은 독재정권에 항거하면서 언론자유와 확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 언론학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언론 현실을 제대로 비판하거나 이에 개입하지 못하는 언론학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2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한국 언론학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과도 연결된다. 송우천(2001), 이재경(2005), 김성해(2007), 최경진(2007), 박동숙(2009) 등은 언론학계에서 실무적 저널리즘 교육이 사라진 것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바탕에는 올바른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언론학 교육이 언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언론학의 중요한 기여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학회 미래위원회가 2009년 발간한 <언론학 교육의 길을 묻다>와 그 후속 작업으로 한국언론학회 언론교육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언론학 교육의 혁신 모델>은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 논란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포섭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언론학 교육의 길을 묻다>는 현실과 지식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보편’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언론학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여러 학문을 엮는 ‘자유 학문’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언론 현실에 기여하는 ‘성찰적 실천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강명구, 2009). 뒤이어 발간된 <언론학 교육의 혁신 모델>은 일련의 교양 교육과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언론 현실에 발맞추려는 국내외 저널리즘스쿨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박은희, 2014).

두 연구를 가로지르는 문제의식은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통섭 또는 통합의 바탕 위에서 언론 현실에 직접 기여하거나 그 현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언론학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언론학 ‘교육’에 초점을 둔 이런 제안은 언론학 ‘연구’의 혁신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언론학 ‘교육’과 언론학 ‘연구’는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통섭의 학문을 추구하여 저널리즘 현실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학의 미래 과제라고 본다면, 그동안 한국 언론학이 저널리즘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왔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메타 분석 연구

언론학 정체성 논란은 학문의 기본을 어디에 두고 어느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언론학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얼마나 진행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언론학 연구 지형 전체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메타 분석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이다(Green & Hall, 1984; Emmers, Someer, & Allen, 1999; Faust & Meehl, 2002; Neuman, 2003). 특히, 전체 연구의 특성과 시대별 동향 혹은 선택된 개념이나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적절하고(김성태, 2005) 이전에 진행된 연구 성과를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 성과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성찰을 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성육제, 2012).

따라서 언론 분야의 국내외 메타 연구를 검토해 보는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언론학에 대한 종합적 메타 분석을 대표하는 연구로는 트럼보(Trumbo, 2004), 크레이머, 헤스, 그리고 레이드(Kramer, Hess, & Reid, 2007) 등이 있다. 트럼보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관련된 8개 국제학술지에 1990년부터 10년 동안 게재된 2,649개 논문의 방법론을 분석했는데 전체 논문의 60%가 양적분석, 40%가 질적 분석을 택했고, 양적·질적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논문의 58%는 뚜렷한 근거 이론 또는 검증하려는 이론이 없는 연구라는 점을 밝혔다.

크레이머 등은 분석 기간을 늘여 통시적 분석을 시도했는데 70년 동안 4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논문 길이, 참조 문헌 수, 공저자의 수, 여성 저자의 비중 등이 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양적 연구의 비중이 높아진 추세도 드러났는데 1934~1960년 45%를 차지했던 양적 분석 논문은 1963~2005년 60%로 늘었다.

번즈(Bunz, 2005)는 8개 학술지에 게재된 349편의 논문의 저자를 젠더, 직위, 소속 대학 등의 유목으로 분석하여 정교수가 부교수·조교수보다 더 많은 논문을 발표했음을 밝혔다. 볼칸, 그리핀, 홀그렌, 그리고 힉슨(Bolkan, Griffin, Holmgren, & Hickson, 2012)은 2007년부터 4년 동안 21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를 분석하여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언론학자 30명을 추출했다.

해외의 선행 연구는 언론학이 뚜렷한 토대 이론 없이 양적분석 방법을 주로 취하여 진행되고 이런 경향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면서 더 강화됐음을 드러내지만 하위 분과별 연구 사이에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저자 특성 또는 방법론에 주목하는 외국의 메타 분석에 비해 국내의 메타 분석은 주로 연구 영역에 관심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광고·홍보학을 제외한 저널리즘 연구에 초점을 두고 한국 언론학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연구로 문종대(2001)가 있다. 이 연구는 1991~2000년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언론과 사회〉 등 언론관련 4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 전체를 분석하여 각 논문의 연구 영역을 주제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연구를 보면, 1990년대 한국 언론학 연구의 다수는 저널리즘과 관련이 없는 연구였고 저널리즘 연구 가운데서도 뉴스 메시지 연구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범수와 한상권(2007)은 2000~2004년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에서 모두 643편의 논문을 추출하여 저자 인용의 연결망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학이 방송, 뉴미디어, 문화, 젠더 등 소수의 연구 분야에 다수의 학자가 서로 연계되는 집중화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김용학·김영진·김영석(2008)은 1996~2005년 〈한국언론학보〉에 게재된 514편의 논문의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해 인터넷 미디어 관련 논문이 한국 언론학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발견했다. 안민호(2005)는 1995~2004년 〈한국언론학보〉에 실린 논문의 핵심 이론 매트릭스를 분석해, 사회심리학적 배경을 가진 이론들을 활용하는 군집과 문화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 등 비판이론을 활용하는 군집이 다소 분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다른 이론 군집과 묶이지 않는 독립적인 소수 이론의 군집도 많다는 점을 규명해 언론학 이론의 파편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

그밖에도 특정 하위 분과 영역을 다루는 메타 분석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됐다. 인터넷 및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 동향에 대한 메타 분석이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지속됐다(황상재·박석철, 2004; 우형진, 2005; 황용석, 2006; 강진숙, 2008; 우형진·박지연, 2011; Ye&Ki, 2012; 신태범·권상희, 2013; 임종섭, 2014). 방송, 방송정책, 방송통신 분야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정재철, 2002; 정인숙, 2006; 송종길·황성연, 2009; 원용진·황상현, 2011).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는 김춘식, 양승찬, 이강형, 그리고 황용석(2005), 송종길과 박상호(2007) 등이 있다. 그밖에 언론 법제(이승선, 2005), 커뮤니케이션 정책(윤석민·백영민, 2005), 커뮤니케이션사(김영희, 2005), 지역 언론학(최현주·이강형, 2008), 문화 연구(이영주·조세훈, 2004) 등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언론학 분야의 메타 분석은 뉴미디어·방송 등 특정 연구 영역에 국한한 분석적 메타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학문

전체의 동향을 살펴본 메타 분석은 분석 시기가 5년 또는 10년 이내여서 장기간에 걸친 전체적 변화 추세를 살펴보지 못했고 1990년대 이후 많은 학술지가 속속 발간됐음에도 최대 4개 학술지 외의 다른 언론학 관련 학술지를 망라하지 못해 특정 학술지 이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처음부터 배제했으며 분석 유목이 다양하지 않아 연구 지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를 망라하면서 25년에 걸친 장기 추세를 살펴보는 동시에 다양한 유목을 적용할 것이다.

3) 저널리즘 연구

저널리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 연구의 지평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가장 큰 난점은 다양한 학문정체성을 갖는 언론학 연구 가운데 무엇을 저널리즘 연구로 볼 것인가를 정의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저널리즘에 대한 교과서적인 개념 정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건호(2013)는 맥퀘일(McQuail, 2000)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반적인 의사소통을 아울러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하고 그 하위 개념인 매스커뮤니케이션(학)은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저널리즘 연구는 다시 그 하위 개념으로서 대중매체가 공공의 관심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각각 정의했다.

젤리저(Zelizer, 2004)는 저널리즘의 정의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다양한 ‘해석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학문적 문헌에 등장하는 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해석’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저널리즘을 기자 등 ‘(언론)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행위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있다. 이는 무엇이 뉴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 또는 행위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깊다. 둘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제도로서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태도가 있다. 여기서는 언론과 여론을 정치경제학 또는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연구하게 된다. 셋째, 저널리즘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여 연구한다. 여기서는 텍스트로서의 뉴스의 특성 자체에 주목하게 된다. 넷째, ‘사람’으로서의 저널리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도 있다. 뉴스 생산자에 대한 이런 연구는 민속지학적 연구와 관련이 있다. 다섯째, 저널리즘을 ‘행위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있다. 이는 여러 요소에 의해 형성된 뉴스의 수집, 제시, 전파의 과정과 배경에 주목한다.

젤리저는 이런 연구 성향 또는 흐름을 종합하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저널리즘 및

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든 연구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저널리즘 연구 영역을 한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다만 젤리저의 5가지 해석 유형을 종합해 보자면, 전문직을 지향하는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를 둘러싼 여러 사회 현상을 연구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2013)는 최신 미디어 연구를 정리하면서 ‘(미디어 효과의) 위계 모델’(the hierachical model)을 제시했는데, 미시 차원에서 거시 차원으로 확산하는 그 연구 대상으로 ‘개인’(individual), ‘뉴스 관행’(routine practices), ‘미디어 조직’(media organizations), ‘사회 기구’(social institutions), ‘사회 체계’(social systems)를 꼽았다. 이런 구분은 젤리저가 거론한 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5가지 ‘해석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정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뉴스 생산의 주체인 뉴스 조직을 위계의 중간에 두고 뉴스 관행 및 (뉴스 생산과 소비의) 개인을 그 하위 범주로 설정하는 한편, 뉴스 조직의 상위 범주로 뉴스 조직을 둘러싼 사회 기구 및 체계를 상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연구를 미디어 연구로 포괄했다. 이를 다시 ‘행위 주체’의 차원에서 구분해 보자면 ‘개인’은 뉴스 생산자와 수용자, ‘뉴스 관행’은 뉴스룸, ‘뉴스 조직’은 (뉴스룸을 포괄하는) 개별 언론사, ‘사회 기구’는 광고주·압력단체, ‘체계’는 언론 관련 법·제도·시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슈메이커와 리즈가 저널리즘 연구에 국한하여 ‘위계 모델’을 제시한 것이 아니지만 그 모델은 뉴스 생산과 수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분한 것으로서 저널리즘 연구의 영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모델을 차용하자면, 저널리즘 연구는 뉴스를 둘러싼 개인(뉴스 생산자와 뉴스 수용자), 관행(뉴스룸), 조직(언론사), 기구(기업과 단체), 체계(시장과 국가) 등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중대(2001)는 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면서 ① 신문과 관련 있는 모든 연구 ② 저널리즘적 요소를 갖고 있는 뉴스, 다큐멘터리, 시사프로 그램 등 방송 연구 ③ 저널리즘적 요소를 갖고 있는 뉴미디어 연구 ④ 민주주의와 언론간의 관계 연구 ⑤ 저널리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법제, 언론 정책, 언론산업 연구 등을 저널리즘 연구 논문으로 포함시켜 저널리즘 연구를 메타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자면 대중 언론이 공공의 사안을 보도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저널리즘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젤리저와 슈메이커 및 리즈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으로서의 뉴스 생산자 및 수용자, 집합 행위로서의 뉴스 생산 관행, 뉴스 생산을 둘러싼 미디어 조직, 뉴스와 관련한 각종 사회 기구, 뉴스에 영향을 주는 사회 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저널리즘

연구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저널리즘 연구를 살펴본 문종대(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저널리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방송·뉴미디어 연구, 여론 연구,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연구, 저널리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법제, 언론 역사, 저널리즘 관련 언론 정책 연구, 뉴스 효과 연구, 뉴스와 관련된 뉴미디어 연구 등이 저널리즘 연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저널리즘 연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다소 별개로 저널리즘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갠즈(Gans, 1983)를 주로 참조했다. 서구 언론학의 정체성 논쟁의 장이었던 1983년 ICA(Intra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심포지엄 ‘퍼먼트 인 더 필드’(Ferment in the field)에서 갠즈는 뉴스·뉴미디어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난 10~12년 동안 많은 단행본과 굵직한 논문을 생산해온 뉴스와 뉴스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p. 174)고 평가했다. 1970~1980년대까지 서구 언론학 연구의 핵심이자 가장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낸 분야가 저널리즘 연구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뒤이어 같은 글에서 갠즈는 “(언론학 연구에서) 1970년대의 중요한 성취는 언론이 어떻게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하고, 생산하고, 확산시키는지에 대한 일련의 발견에 있다”(p. 176)면서, 이에 기초해 미래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뉴스에 대한 연구 및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조직)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졌으니 앞으로는 뉴스 조직이 뉴스 조직 외부의 권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언론이 정치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반대로 정치가 언론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적 대중이 뉴스를 어떻게 수용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 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질적 연구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기왕의 저널리즘 연구가 어떤 이론 지형 또는 이데올로기 구도에 바탕을 두는지를 살펴보는 메타 연구도 미래 과제로 제기했다.

갠즈의 제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충분히 축적된 뉴스 생산자 및 뉴스 생산조직 연구의 성과에 기초해 그 확장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과학 연구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학 연구 전체에서 저널리즘 연구의 위상과 과제에 대한 갠즈의 지적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언론학의 연구 지형을 저널리즘 연구 중심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의 바탕에는 1980년대 초반 갠즈의 문제의식이 있다. 저널리즘 연구의 성숙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확장시키자는 그의 제안을 오늘 한국 언론학계에 적용해보자면, 저널리즘 연구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로부터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 논란이 시작된 것일 수 있다. 이는 언론학 전체에서 저널리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저널리즘 연구의 동향과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저널리즘 연구의 경향성과 지형을 종합적으로 또한 통시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취지에서 다각적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유목으로 개발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 문제 1: 국내 언론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저널리즘 연구의 비중은 얼마인가?
- 연구 문제 2: 위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연구 주제, 방법론, 연구 매체,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함의, 게재 학술지, 저자 등의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 문제 3: 위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특성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2) 자료 수집과 분석 대상

저널리즘 관련 학술지 선정은 2014년 12월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 20개 가운데 저널리즘 관련성이 높은 학술지를 선정했다.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는 광고·홍보·출판 등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언론학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학술지는 저널리즘과 상당히 구분되는 연구 주제를 주로 다루 메타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것으로 보고 배제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2개 학술지는 <한국언론학보>, <언론정보학보>, <한국방송학보>, <언론과 사회>, <커뮤니케이션이론>, <언론과학연구>, <방송문화 연구>, <방송통신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언론정보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등이다.¹⁾ 분석 단위 및 연구 대상은 이들 12개 학술

1) 이러한 이유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학술지는 <언론과 법>,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홍보학 연구>, <광고PR실학연구>, <광고학

지에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게재된 개별 연구 논문이다. 학술지 가운데는 창간 이후 명칭이 바뀐 경우도 있었지만 발행 학회 등이 그대로 유지된 만큼 동일한 학술지로 보고 현재 학술지 명칭으로 통일하여 분석했다. 예컨대 현재 <한국언론학보>는 1992년 이전엔 <한국신문학보>였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1990~1992년 <한국신문학보>도 <한국언론학보>로 간주했다.

분석 시기를 1990년 이후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자유화가 본격화된 것이 1980년대 후반이다. 언론 현실의 변화와 함께 구래의 신문학 중심 체계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편제를 본격 구축하면서 <한국신문학보>가 <한국언론학보>로 명칭을 바꾼 것이 1992년이고 대부분의 다른 학술지도 1990년 이후 발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학 연구가 본격화됐을 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한 시점을 1990년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2개 학술지에 1990~2014년까지 게재된 논문 총 5,895편을 분석했다. 권두언, 좌담, 비평 등 연구 논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3) 분석 유목

한국 언론학 연구의 통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유목을 적용했다. 저널리즘 연구 논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저널리즘 연구 논문 가운데 연구 주제, 연구 매체, 연구자 특성, 연구 방법, 적용 이론 및 개념, 연구 함의, 국가 비교 연구 여부, 통시 연구 여부 등으로 세분화한 유목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교차 분석했다.

(1) 저널리즘 연구 논문

1990~2014년 12개 학술지에 실린 모든 논문을 ‘저널리즘 연구 논문’과 ‘비저널리즘 연구 논문’으로 구분했다. 문종대(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저널리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방송·뉴미디어 연구, 여론 연구,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연구, 저널리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법제, 언론 역사, 저널리즘 관련 언론 정책 연구, 뉴스 효과 연구 등을 저널리즘 연구로 분류했다.

반면 광고·홍보·영화·출판 연구, 대인·실득 커뮤니케이션 연구, 정당 등 정치행

연구), <광고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조사연구> 등 8개이다.

위자 중심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저널리즘 관련성이 낮은 방송 기술·방송 정책 연구, 저널리즘 관련성이 낮은 뉴미디어 연구, 저널리즘 관련성이 낮은 문화 연구 등은 비저널리즘 연구로 코딩했다. 다만 이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이라 할지라도 본문을 일일이 검토하여 저널리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엔 저널리즘 연구로 코딩했다.

예를 들어 <한국언론학보> 2014년 8월호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김영희의 ‘한국전쟁 초기 전쟁 소식 전파와 대응의 커뮤니케이션’ 논문은 전쟁 상황을 주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접했던 것에 대한 연구로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해당하지만, 매스 미디어 또는 뉴스에 대한 관심에서는 다소 비켜나 ‘비저널리즘 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같은 호 목은영의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견해반영, 관점 균형성이 뉴스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실험적 처치를 통한 효과 연구이지만 정보원 다양성 등이 뉴스 공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된 연구 목적이 있어 뉴스 및 미디어 관련 연구로 보아 ‘저널리즘 연구’로 코딩했다.

(2) 연구 주제

저널리즘 연구 가운데 주제별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① 뉴스 생산자 ② 뉴스 생산 조직 ③ 뉴스 원칙 및 뉴스 콘텐츠 ④ 뉴스 수용자 ⑤ 언론 환경 ⑥ 언론 역사 ⑦ 언론 법제와 윤리 ⑧ 언론 사상 및 철학 ⑨ 기타 등 세부 항목별로 연구 주제를 분류했다. 여기서 ‘뉴스 생산자’는 기자 또는 시사교양 피디 등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개인이고 ‘뉴스 생산 조직’은 이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공간 또는 조직으로서의 뉴스룸 등이다. ‘뉴스 원칙’은 객관성, 공정성 등 취재 보도의 관행에 적용되는 기준 또는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정파적 보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면 공정성 등에 대한 ‘뉴스 원칙’ 연구로 코딩했다.

(3) 저자

저널리즘 연구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 저자를 기자 등 언론 경력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분석했다. 저자의 약력을 소속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인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엔 개별적으로 연락해 언론인 이력 여부를 확인했다. 공식적인 프로필 등에 언론사 소속으로 기자 또는 피디로 재직한 사실을 밝힌 경우를 언론 경력자로 코딩했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공동 논문의 경우엔 공저자 가운데 1명이라도 언론 경력자가 있는 경우 언론 경력자가 집필한 논문으로 코딩했다.

(4) 연구 매체

연구 매체를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인터넷, 뉴미디어, 복합, 기타 등으로 구분해 코딩했다. 여기서 뉴미디어란 팟캐스트, UCC 등 인터넷으로 구분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다.

(5) 연구 목적

연구 문제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거나 연구자가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즉, 탐색을 하고자할 때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며 연구 가설은 연구에서 다룰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앞서 미리 예상하고 연구의 결론을 검증하는 형태를 지닌다(정재욱, 2006). 이런 정의에 기초하여 ‘탐색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연구와 ‘기존 이론 또는 개념의 검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를 구분해 보았다. 분석 대상 논문의 초록 및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을 살펴보고 각 논문이 제시한 연구 목적의 유형을 ① 연구 문제 제시형 ② 연구 가설 제시형 ③ 혼합형(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의 동시제시) ④ 없음(연구 문제 및 가설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6) 연구 방법론

언론학 연구 논문의 방법론을 크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나눠 코딩했다. 이때 양적 방법에는 ① 설문조사 ② 내용 분석 ③ 실험 연구 ④ 2차 자료 분석 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⑥ 심층 인터뷰 ⑦ 참여관찰 ⑧ 문헌 연구 ⑨ 담론 분석 ⑩ 복합연구 등은 질적 방법으로 분류했다.

(7) 근거 이론 및 핵심 개념

모든 연구 논문은 일정한 이론 또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언론학 정체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기여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각 연구 논문이 이론 또는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는지를 코딩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근거 이론 또는 개념의 이름을 분명히 밝힌 경우만 ‘근거 이론 및 핵심 개념’이 있는 것으로 코딩했다.

처음에는 ‘이용과 충족’, ‘의사소통행위이론’, ‘게이트키퍼’, ‘의제설정’ 등 근거 이론 및 핵심 개념을 일일이 코딩했으나 각 연구 논문이 끌어들이는 이론 및 개념이 잡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거 이론 및 핵심 개념의 유무만 코딩하게 됐다.

(8) 연구 합의

모든 연구는 특정한 연구 목적 아래 진행된 것으로 당연히 이에 따른 저마다의 합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언론학 연구가 언론 현실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학계 내부의 성찰을 감안하여, 보다 엄밀하게 연구 합의를 분석했다.

우선 연구 합의를 실천적 합의와 이론적 합의로 구분하고 연구의 방향·목적 등이 이론 분야와 현실 분야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를 구분했다. 기자, 언론 실무자, 조직 등 뉴스 생산자에게 뉴스 현실을 바꾸기 위한 생산적·실무적인 제시를 하거나 연구결론 및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언론 현실에 대한 비판, 개선책 제시 또는 촉구 등을 기술한 경우 ‘실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뉴스연구와 관련해 이론적·학문적 의미를 강조한 경우에는 ‘이론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연구 논문은 일정한 이론적 토대를 갖지만 연구에 활용한 배경 이론 또는 핵심 개념과 관련해 그 의미를 자기 의견으로 강조하거나 선행 연구와 비교해 앞으로 진전해야 하는 이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엔 이론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코딩했다. 이론적 합의와 실천적 합의를 동시에 밝힌 경우는 중복하여 코딩했다.

이들 두 합의 모두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본문에서 한 문장 이상에 걸쳐 ‘명시적으로’ 연구 합의를 밝힌 경우에만 합의가 있는 것으로 코딩했다.

(9) 국가 간 비교 연구

뉴스 현실 개선을 위해 하나의 참조 또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외국 언론의 현실에 대한 연구가 전체 저널리즘 연구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매체 또는 조직을 한국에 국한했는지, 외국의 매체 또는 조직을 연구했는지, 두 나라 이상을 비교분석했는지, 국가 간 비교 연구에 적용한 국가는 어디인지 등을 코딩했다.

(10) 공시적-통시적 연구

통시적 연구는 시기별로 차별성을 규명하고 변화의 추세를 밝혀내는 데 적합하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유목 개발에 앞서 통시적 연구를 수행한 저널리즘 연구 논문 10여 편을 사전 분석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기간을 다뤘다는 점을 발견하여 10년 이상의 변화 추이를 다룬 논문을 ‘통시적 연구’로 구분하고 그밖에는 공시적 연구로 코딩했다. 다만 10년 이하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잡았더라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은 것이 명백한 경우엔 통시적 연구로 보았다.

(11) 시기 구분

이상의 각 유목별로 1990년부터 1년 단위로 25년 동안의 변화를 일일이 코딩했다. 그러나 유목이 다양하고 복잡해 1년 단위로 분석할 경우, 변화 추세를 밝혀내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연구 편의상 5개년 단위씩(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5개 기간으로 크게 구분해 분석했다.

(12) 코딩의 신뢰도

본 연구는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저널리즘 관련 1,205편의 논문 중 120편(10%)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내용 분석을 훈련 받은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각 유목별로 코딩 작업을 실시하여 코더 간 신뢰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연에 의한 일치가능성을 감안해 산출하는 코헨스 카파(Cohen's Kappa) 계수는 유목별로 연구주제 0.96, 연구방법 1.00, 이론 및 핵심 개념 0.83, 연구매체 0.97, 실천적 함의 0.86, 이론적 함의 0.75, 저자경력 1.00, 연구목적 1.00, 국가 간 비교 1.00, 공시적-통시적 연구 1.00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검증했다.

4. 분석 결과

1) 12개 학술지의 저널리즘 논문 게재 분포

1990년 이후 2014년까지 25년 동안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총 논문은 5,895편이었다. 이 가운데 저널리즘 연구 논문은 20.4%(1,205편)였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연구 논문의 개수는 2000년대 들어 급증했으나 그 비중을 보면 시기별로 큰 차이 없이 전체 언론학 연구 가운데 20% 안팎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널리즘 연구 논문을 많이 게재한 학술지는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방송학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그림 2>를 보면 각 학술지에 실린 논문 가운데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비중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어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학보>, <언론과 사회>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방송 관련 학술지의 경우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게재 비중이 낮았다. 이는 학술지마다 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12개 학술지 총 논문 수 대비 저널리즘 관련 논문 시기별 변화

(괄호 안: %)

시기	1990~1994	1995~1999	2003~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빈도(비중)	76(17)	124(20.3)	229(20.7)	388(21.2)	388(20.3)	1,205(20.4)

$\chi^2 = 226.552, df = 44,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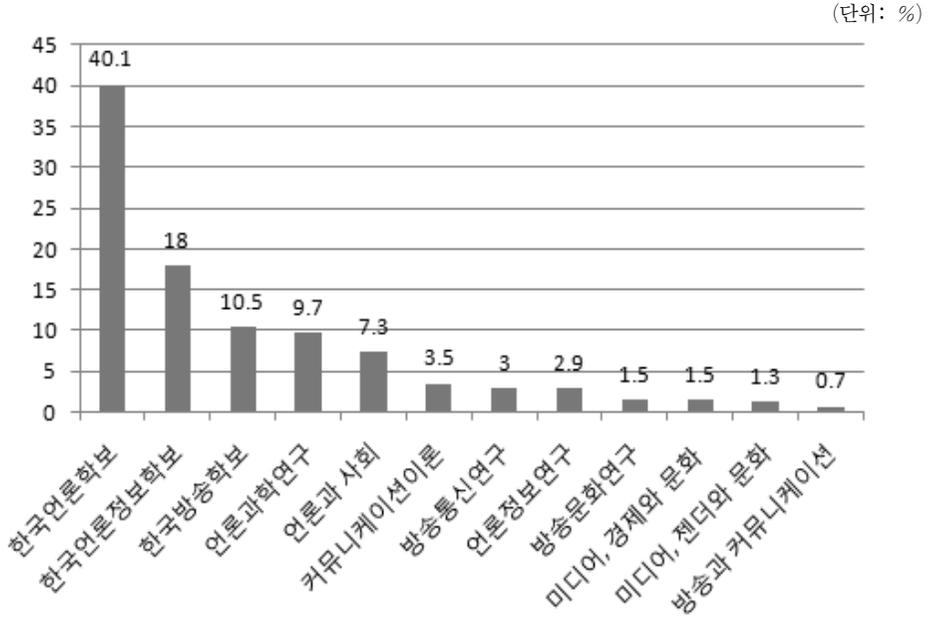


그림 1.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학술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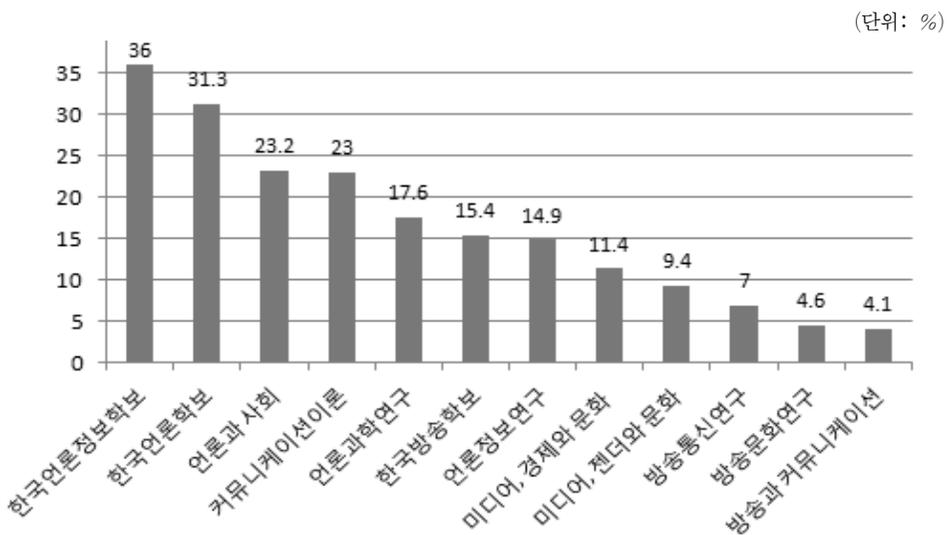


그림 2. 학술지별 총 논문 가운데 저널리즘 연구 논문

2) 연구 주제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연구 주제 유형을 시기별로 분석하면 <표 2>와 <그림 3>과 같이 ‘뉴스 콘텐츠’가 30% 안팎을 유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역사’ 연구는 1990~1994년에는 26.3%를 차지하며 ‘뉴스 콘텐츠’ 다음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주제였지만 이후 급감하여 2010~2014년에는 12.1%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뉴스 수용자’ 연구는 3.9%에서 24.2%로 급증했다. ‘뉴스 생산자’, ‘뉴스 생산 조

표 2. 연구 주제 유형의 시기별 변화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뉴스 콘텐츠	23(30.3)	35(28.2)	69(30.1)	128(33.0)	139(35.8)	394(32.7)
뉴스 수용자	3(3.9)	13(10.5)	46(20.1)	88(22.7)	94(24.2)	244(20.2)
언론 역사	20(26.3)	26(21.0)	30(13.1)	42(10.8)	47(12.1)	165(13.7)
언론 환경	8(10.5)	17(13.7)	26(11.4)	19(4.9)	31(8.0)	101(8.4)
뉴스 생산 조직	7(9.2)	2(1.6)	17(7.4)	27(7.0)	17(4.4)	70(5.8)
뉴스 생산자	4(5.3)	2(1.6)	7(3.1)	29(7.5)	27(7.0)	69(5.7)
법/제도/윤리	2(2.6)	5(4.0)	22(9.8)	29(7.5)	10(2.6)	68(5.6)
언론 사상/철학	8(10.5)	14(11.3)	4(1.7)	16(4.1)	10(2.6)	52(4.3)
기타	1(1.3)	10(8.1)	8(3.5)	10(2.6)	13(3.4)	42(3.5)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123.534, df = 32,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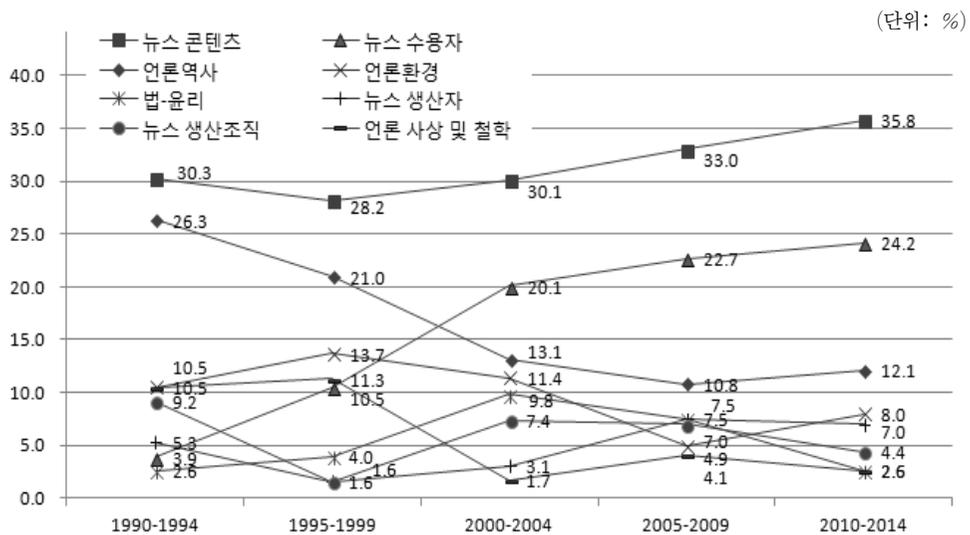


그림 3. 연구 주제 유형의 시기별 변화

직’, ‘언론 환경’ 등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큰 차이 없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3) 연구 매체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연구 대상 매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문’이 36.3%

표 3. 저널리즘 연구 대상 매체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신문	33(43.4)	41(33.1)	78(34.1)	146(37.6)	140(36.1)	438(36.3)
TV 방송	14(18.4)	24(19.4)	38(16.6)	59(15.2)	50(12.9)	185(15.4)
복합	2(2.6)	4(3.2)	33(14.4)	67(17.3)	71(18.3)	177(14.7)
인터넷	-	4(3.2)	26(11.4)	35(9)	29(7.5)	94(7.8)
뉴미디어	-	-	1(0.4)	15(3.9)	15(3.9)	31(2.6)
소셜미디어	-	-	-	-	13(3.4)	13(1.1)
잡지	-	2(1.6)	1(0.4)	1(0.3)	1(0.3)	5(0.4)
라디오	-	1(0.8)	-	1(0.3)	-	2(0.2)
기타	27(35.5)	48(38.7)	52(22.7)	64(16.5)	69(17.8)	260(21.6)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125.236, df = 32,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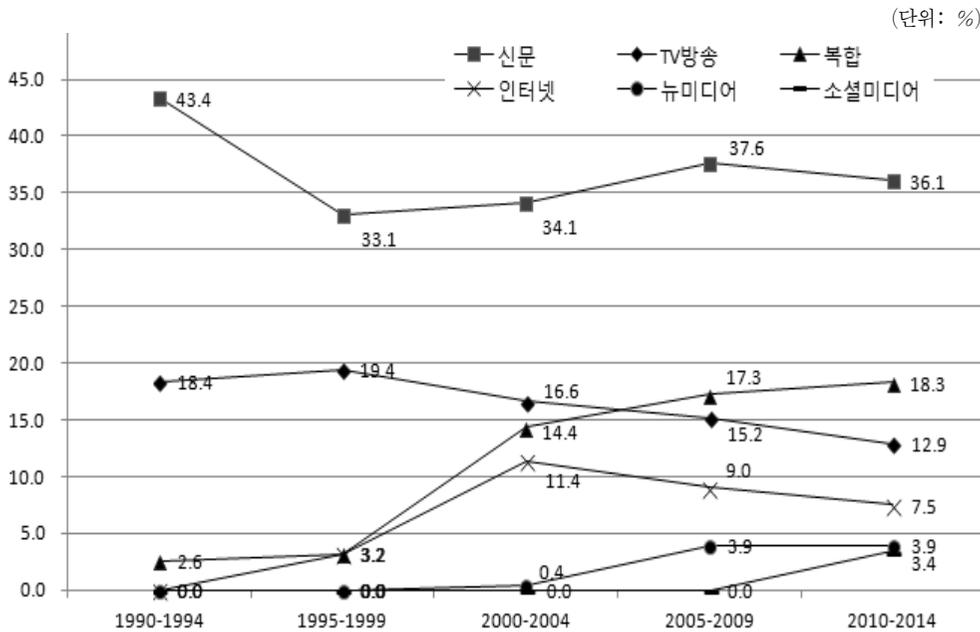


그림 4. 저널리즘 연구 대상 매체

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TV방송’이 15.4%, 여러 매체를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한 ‘복합 매체’가 14.7% 그리고 ‘인터넷’, ‘뉴미디어’가 각각 7.8%, 2.6%로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여러 매체를 동시 연구한 ‘복합 매체’ 연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자의 관심은 ‘신문’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연구 목적

저널리즘 연구가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 중 어떤 연구 목적의 유형을 채택하는지 분석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86.9%가 ‘연구 문제 제시형’이었다. 이는 대다수의 저널리즘 논문이 탐색적 연구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저널리즘 연구의 연구 목적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연구 문제	71(93.4)	107(86.3)	204(89.1)	337(86.9)	328(84.5)	1,047(86.9)
연구 가설	1(1.3)	7(5.6)	13(5.7)	26(6.7)	26(6.7)	73(6.1)
혼합	1(1.3)	2(1.6)	10(4.4)	22(5.7)	33(8.5)	68(5.6)
제시 안 됨	3(3.9)	8(6.5)	2(0.9)	3(0.8)	1(0.3)	17(1.4)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47.621, df = 12, p < .001$

5) 연구 방법

연구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용 분석’으로 <표 5>와 같이 전체의 29.0%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문헌 연구’(23.9%), ‘설문조사’(14.1%)의 순이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연구 방법을 채택한 ‘복합 연구’가 12.5%로 나타났다. ‘참여 관찰’을 적용한 연구는 극히 미미했다.

이를 다시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으로 크게 구분해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양적 방법론’을 채택한 연구가 급증하여 1990년대 초반 20% 정도였던 양적 방법론이 2010년대 초반에는 60%를 넘어섰다. 이는 해외 학술지에 실린 언론학 논문 가운데 60%가 양적 분석을 채택했음을 밝힌 트럼보(2004)의 연구와 흡사하다.

표 5. 저널리즘 연구 방법의 시기별 변화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내용 분석	12(15.8)	24(19.4)	67(29.3)	117(30.2)	129(33.2)	349(29)
문헌 연구	41(53.9)	64(51.6)	56(24.5)	67(17.3)	60(15.5)	288(23.9)
설문조사	4(5.3)	7(5.6)	31(13.5)	56(14.4)	72(18.6)	170(14.1)
복합 연구	12(15.8)	12(9.7)	34(14.8)	53(13.7)	40(10.3)	151(12.5)
실험 연구	-	1(0.8)	6(2.6)	27(7)	30(7.7)	64(5.3)
담론 분석	5(6.6)	11(8.9)	11(4.8)	20(5.2)	15(3.9)	62(5.1)
심층 인터뷰	-	1(0.8)	4(1.7)	22(5.7)	26(6.7)	53(4.4)
2차 자료 분석	-	-	16(0.7)	12(3.1)	6(1.5)	34(2.8)
빅데이터 분석	-	-	-	-	1(0.3)	1(0.1)
참여 관찰	-	1(0.8)	-	-	-	1(0.1)
기타	2(2.6)	3(2.4)	4(1.7)	14(3.6)	9(2.3)	32(2.7)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193.783, df = 4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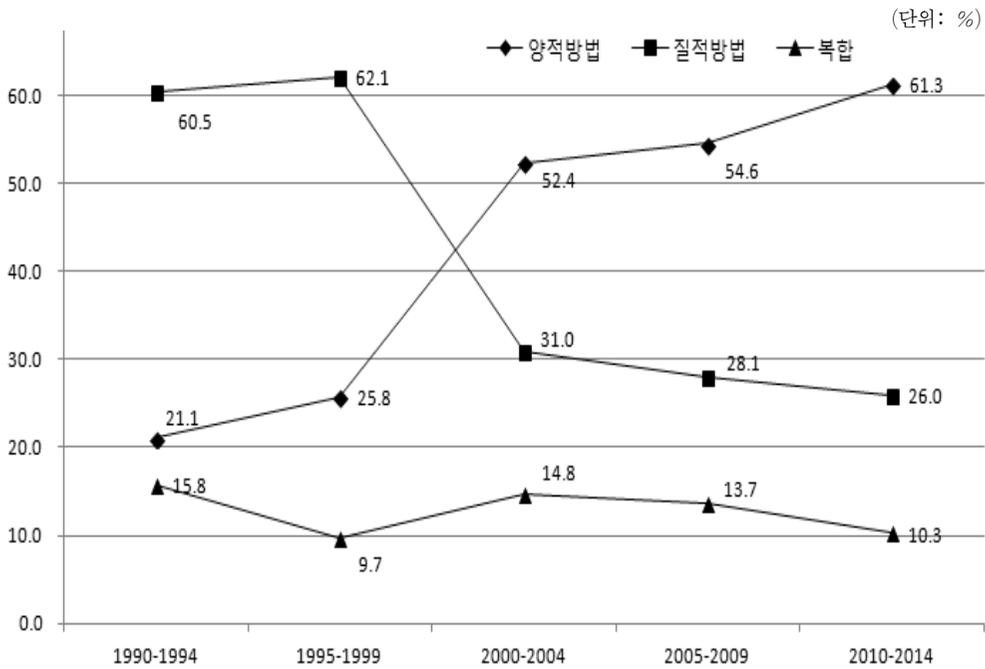


그림 5. 저널리즘 연구 방법(대분류)의 시기별 변화

6) 이론 및 개념

저널리즘 연구에 적용된 이론 및 개념 분포($\chi^2 = 41.150, df = 4, p < .001$)를 보면, ‘특정한 근거 이론 및 개념이 없는’ 경우가 전체 저널리즘 연구논문 가운데 42.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학 논문 가운데 58%가 뚜렷한 근거이론 또는 검증이론이 없다는 점을 밝힌 트럼보(2004)의 연구와 흡사하다. 다만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근거 이론 및 개념이 없는 연구 논문의 비중이 1990~1994년의 65.8%에서 2010~2014년의 33.8%로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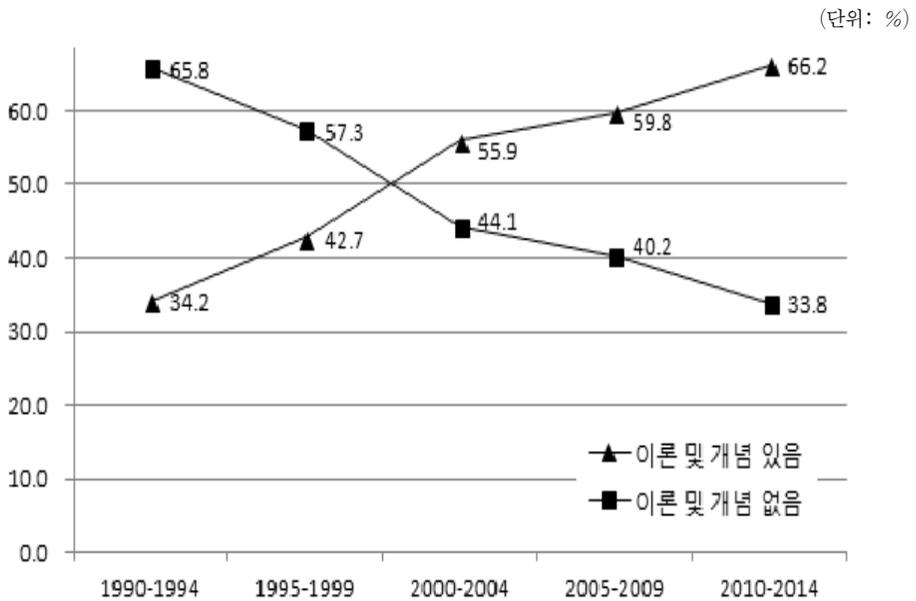


그림 6. 저널리즘 연구에 적용된 근거 이론 및 핵심 개념 유무

7) 국가 비교

외국 언론에 대한 연구는 한국 언론 현실 개선을 위한 새로운 참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 국가 간 비교 연구의 비중을 분석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연구’가 86.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느 나라든 ‘외국과 비교한 연구’는 13.4%로 매우 적었다.

국내 연구를 제외하고 국가 간 비교 연구만 살펴보면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미국 비교 연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일본, 한국-유럽 등을 비교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표 6. 국가 간 비교 연구의 시기별 변화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국내 연구	67(88.2)	98(79)	185(80.8)	346(89.2)	347(89.4)	1,043(86.6)
한국-외국 비교	7(9.2)	15(12.1)	32(14)	33(8.5)	33(8.5)	120(10)
외국 간 비교	1(1.3)	-	2(0.9)	2(0.5)	2(0.5)	7(0.6)
기타	1(1.3)	11(8.9)	10(4.4)	7(1.8)	6(1.5)	35(2.9)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31.805, df = 12,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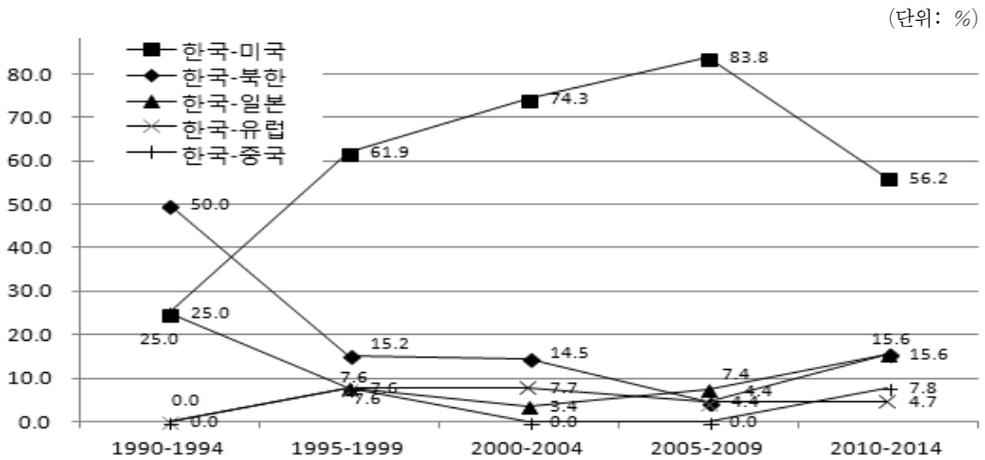


그림 7. 국가 간 비교 연구의 시기별 변화

8) 공시적-통시적 접근

통시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추세적 변화를 드러내는 데 용이하다. 시기별로 급변해온 한국 언론의 현실을 통시적 접근을 통해 드러낸 연구의 비중을 살폈다. 그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시적 접근’의 연구가 85.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통시적 접근’의 연구는 14.9%에 그쳤다.

표 7. 저널리즘 연구의 공시적-통시적 접근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공시적 접근	64(84.2)	97(78.2)	197(86)	337(86.9)	329(84.8)	1,024(85)
통시적 접근	11(14.5)	26(21)	32(14)	51(13.1)	59(15.2)	179(14.9)
복합 접근	1(1.3)	1(0.8)	-	-	-	2(0.2)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15.692, df = 8, p < .05$

9) 연구 함의

저널리즘 연구 논문 가운데 ‘실천적 함의’ 또는 ‘이론적 함의’가 명시적으로 제기된 논문의 비중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8>, <표 9>와 같이 연구 논문의 ‘함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론적 함의’를 밝힌 논문은 전체 가운데 9.1%였고, ‘실천적 함의’를 밝힌 논문은 20.3%였다.

표 8. 연구의 실천적 함의 유무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있음	23(30.3)	18(14.5)	36(15.7)	71(18.3)	97(25)	245(20.3)
없음	53(69.7)	106(85.5)	193(84.3)	317(81.7)	291(75)	960(79.7)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16.433$, $df = 4$, $p < .002$

표 9. 연구의 이론적 함의 유무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있음	5(6.6)	13(10.5)	16(7)	35(9)	41(10.6)	110(9.1)
없음	71(93.4)	111(89.5)	213(93)	353(91)	347(89.4)	1,095(90.9)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3.110$, $df = 4$, $p = 0.54$ (insig)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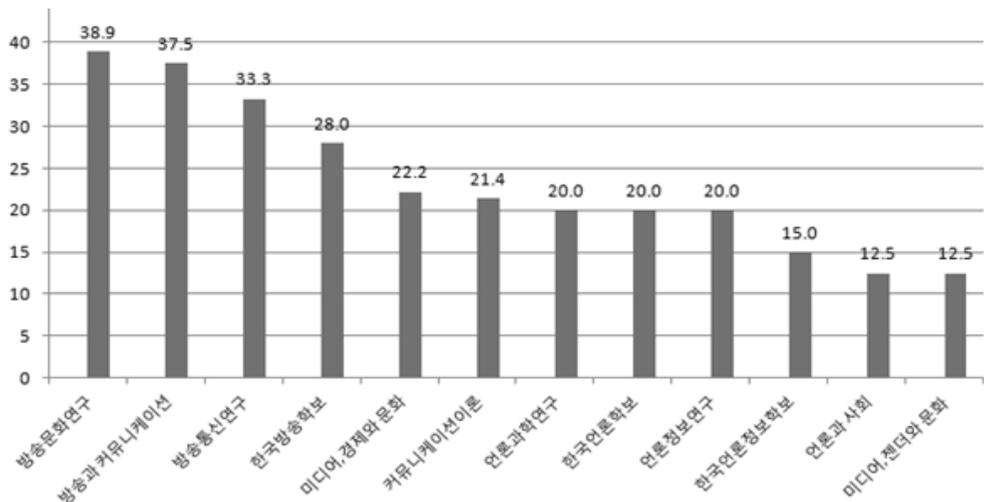


그림 8. 학술지별 실천적 함의 논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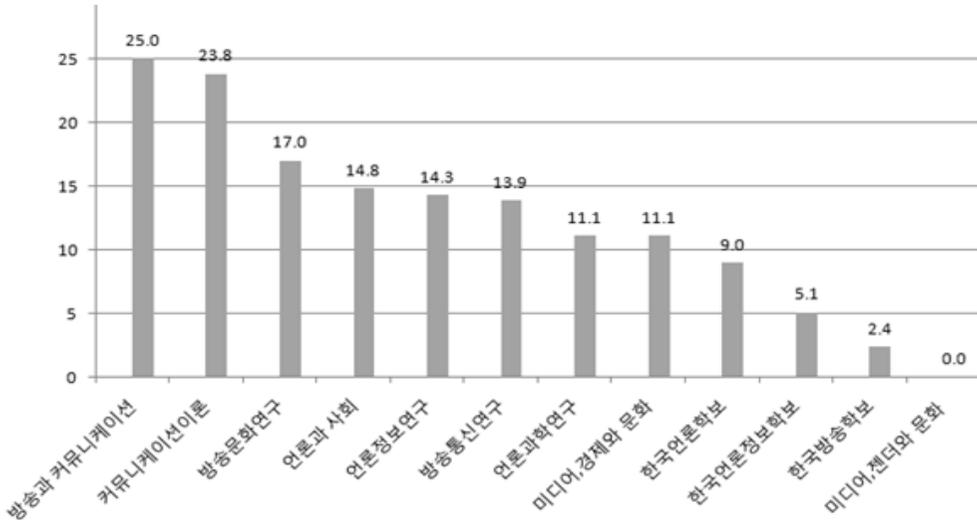


그림 9. 학술지별 이론적 함의 논문

각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그림 8>과 같이 <방송통신연구>, <방송문화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보> 등 방송 관련 학회지에 실린 저널리즘 연구 논문 가운데 ‘실천적 함의’를 담은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이론적 함의’를 밝힌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비중은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론>, <방송문화 연구> 등에서 높았다. 반면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등 학계를 대표할 만한 학술지는 ‘실천적 함의’ 또는 ‘이론적 함의’를 명시한 연구 논문의 게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10) 저자 특성과 연구 특성

논문 저자의 이력 특성, 특히 언론 경력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10>과 같이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단독 또는 공동 저자 가운데 20.4%가 ‘언론인 경력’을 가졌다. 이때 공동저자 가운데 제 1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언론 경력이 있을 경우, 언론 경력자가 집필한 것으로 코딩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략적 분포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자면, 대략 저널리즘 연구 논문의 20% 안팎을 언론인 경력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경력이 있는 저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의 연구 주제를 구분한 결과 <표 10>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이들의 연구 주제 비교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겠지만 대략적 흐름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림 10>과 <그림 11>에 정리했다. 이를 보면 두 그룹 모

표 10. 저널리즘 연구 논문 저자의 언론 경력 유무

(괄호 안: %)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전체
있다	18(23.7)	21(16.9)	43(18.8)	88(22.7)	76(19.6)	246(20.4)
없다	58(76.3)	103(83.1)	186(81.2)	300(77.3)	312(80.4)	959(79.6)
전체	76(100)	124(100)	229(100)	388(100)	388(100)	1,205(100)

$\chi^2 = 3.191$, $df = 4$, $p = 0.526$ (insig)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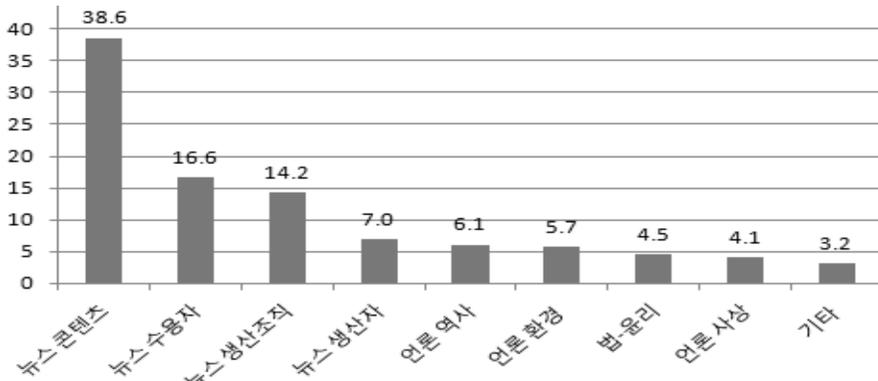


그림 10. 언론 경력 있는 저자의 연구 주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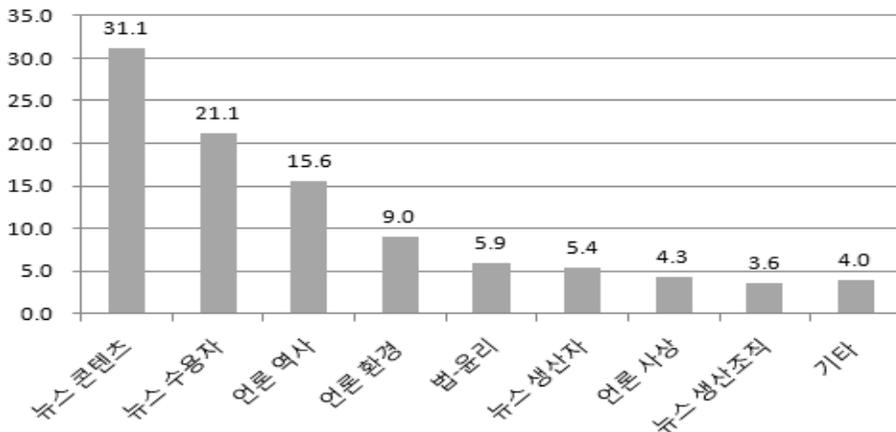


그림 11. 언론 경력 없는 저자의 연구 주제

두 ‘뉴스 콘텐츠’와 ‘뉴스 수용자’를 가장 많이 연구했다. 다만 그다음으로 주로 연구한 주제를 보면, 언론 경력이 있는 연구자는 ‘뉴스 생산 조직’과 ‘뉴스 생산자’를, 언론 경력이 없는 연구자는 ‘언론 역사’와 ‘언론 환경’을 주로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 경력이 있는 저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 가운데 ‘실천적 함의’, ‘이론적 함의’가 있는 논문의 비중은 각각 29.3%, 11.8%였다. 언론 경력이 없는 저자가 단독으로 쓰거나 그런 저자들끼리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8.0%, 8.4%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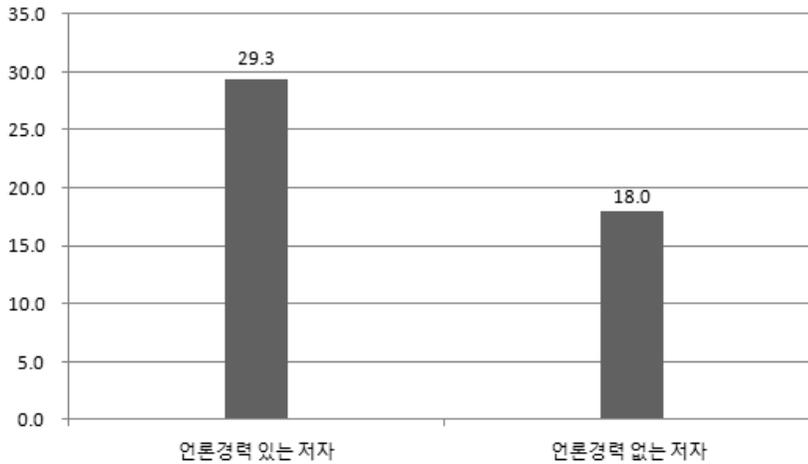


그림 12. 언론 경력 여부에 따른 실천적 함의 논문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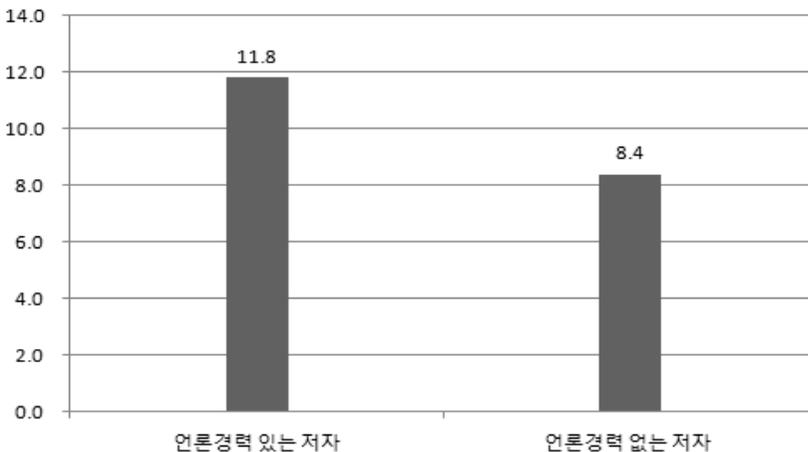


그림 13. 언론 경력 여부에 따른 이론적 함의 논문 비중

5. 요약과 토론

2000년대 이후 언론학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비평적 연구, 분과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 등이 진행되긴 했지만 한국 언론학계의 연구 논문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좋은 언론 전문직 양성이라는 언론학의 '교육' 혁신과 복잡한 언론 현실의 개선에 기여하는 언론학의 '연구' 혁신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실마리가 저널리즘 연구의 변화에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의 시기별 변화와 양태를 살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의미를 짚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5년 동안 국내 언론학 관련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 언론학 연구 논문 가운데 저널리즘 연구 논문은 대략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러 분과 학문을 거느린 언론학에서 저널리즘 연구가 차지하는 이러한 비중이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단정하긴 어렵다. 언론학의 뿌리가 저널리즘에 있음을 감안할 때 나머지 80%의 연구가 비저널리즘 영역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언론학의 정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이유를 짐작케 한다. 많은 연구자가 매스미디어로서의 언론을 둘러싼 현실과 떨어진 곳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물론 매스미디어의 형태와 영역이 엄청나게 팽창하여 언론 현실이 과거 어느 때와 비할 바 없이 복잡다단해지고 이로 인해 언론학의 연구 영역과 대상 역시 넓어졌음에도 저널리즘 연구가 여전히 20%나 되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비중을 접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언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저널리스트를 육성한다거나 쉽 없이 변화하는 언론 현실에 한국 언론학계가 적절히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학술지별로 보자면 언론학 전체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되는 방송학 관련 학술지에서 저널리즘 연구 논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학보〉, 〈언론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전통적인 학술지에선 저널리즘 연구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방송통신연구〉, 〈방송문화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등 방송 관련 학술지는 저널리즘 연구 논문을 많이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언론학 연구의 양적 팽창을 주도한 방송 관련 학술지가 저널리즘 연구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앞선 내용과 연관된 것이기도 한데 저널리즘 연구의 연구 대상 가운데 36%가 신문이고 그 비중이 시기별로 큰 변화 없이 오늘에까지 이른다. 이는 연구자들이 신문만 들

여다보는 ‘언론 현실과 언론 연구의 비대칭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고 복잡한 언론 현실은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진행되는데 연구자들은 그런 현실에 뒤쳐진 것이다.

물론 신문은 저널리즘 연구의 기본이다. 비록 그 대중적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해도 방송과 포털 등 다른 뉴스 매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전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디지털 신기술을 업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고 방송 뉴스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논란도 계속되며 주요 신문사가 이미 종합편성채널과 함께 복합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난 상황까지 감안하면 신문 뉴스를 분석하더라도 이들 영상 뉴스 매체 또는 뉴미디어와 연관하여 복합적으로 상호 비교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방송 관련 연구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송연구의 관심을 기술 변화 및 광고 시장 등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여 오히려 저널리즘에 천착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신문 위기 담론 속에서도 방송 영향력은 더 확대되고 종합편성채널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 매체가 등장한 것을 감안하면 방송 기술, 방송 정책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방송 뉴스와 방송 저널리즘 연구가 절실하다.

방송 저널리즘 연구가 신문 연구에 비해 부족한 것은 영상과 음성 등을 분석해야 하는 방송 뉴스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꺼리는 학계의 풍토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의 어려움을 감안한다 해도 방송 기자 등 방송 뉴스 생산자, 방송 뉴스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 등 방송 뉴스에 접근하는 다양한 저널리즘 연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최근 언론 현실을 돌아보면 보수 또는 진보로 뚜렷이 갈리는 각종 신문의 영향력보다 지상파, 종편, 팟캐스트 등 각종 방송(및 뉴미디어) 뉴스의 영향력이 더 높아졌고 국가적 의제부터 일상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이들 매체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연구자의 주된 연구 대상이 여전히 신문에만 머무는 것은 저널리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결국 저널리즘 연구의 ‘신문 우대, 방송 홀대’ 현상은 한국 언론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동시에 최신 언론 환경에 걸맞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 저널리즘 연구의 ‘비대칭성’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등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는 시기 구분 없이 ‘뉴스 콘텐츠’에 집중됐고, 특히 ‘뉴스 수용자’ 연구가 2000년대 이후 급증했다. 반면 ‘뉴스 생산 조직’, ‘뉴스 생산자’ 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은 낮았다. ‘언론 역사’에 대한 연구도 2000년대 이후 급락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신문 중심의 연구’와 연결시키면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고정된 패턴’이 발견된다. 기존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운데 대표적인 것을 근거로 삼아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을 설정한 뒤, 양적 방법을 적용해 신문 기사 내용을 분석하거나 그 기사에 대한 수용자 반응을 역시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주된 패턴이다.

뉴스 콘텐츠가 뉴스 생산자 및 생산 조직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뉴스 콘텐츠 연구의 높은 비중은 자칫 ‘손쉬운(?) 기사 분석’으로 저널리즘 연구를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전문적 언론인 양성을 위한 언론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뉴스 생산자 및 생산 조직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언론학계가 바람직한 언론인 및 언론 조직의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비되는 ‘뉴스 수용자’ 연구의 증가는 언론학을 커뮤니케이션 일반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긍정적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저널리즘 연구의 상당수를 ‘효과 연구’에 치우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넷째, 위에서 드러난 점을 반영하는 또 다른 측면이라 하겠는데 연구의 이론적 또는 실천적 함의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이 상당하다. ‘이론적 함의’ 또는 ‘실천적 함의’가 있는 저널리즘 연구 논문이 10~20% 정도에 그친 것은 여러 학술지에 실리는 많은 저널리즘 연구 논문이 학문적 발전이나 현실의 개선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논문 그 자체의 완성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는 언론학 ‘교육’과 언론학 ‘연구’에서 동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언론학 정체성을 논구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통섭과 통합을 통한 언론학의 확장에 바탕을 두고 좋은 언론인을 양성하는 교육 커리큘럼 제공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론적 논구에 매달리는 연구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언론 현실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연구도 많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학, 특히 저널리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내놓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널리즘 연구의 고정된 패턴’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뉴스 수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뉴스 생산자, 생산 조직, 언론 역사, 언론 환경 등에서 연구 주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갠즈(Gans, 1983)의 진단과 제언을 이제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는 뉴스 생산자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여 이를 충분히 축적한 뒤, 뉴스 생산자(및 생산 조직)가 외부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옮겨가고 이를 확대해 수용자 연구로 넘어가는 단계를 밟았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저널리즘 연구는 뉴스 생산자 연구의 충분한 누적 또는 성취 없이 곧바로 수용자 연구로 비약하는 형국이다.

둘째, 위 제언과 관련이 깊은 것인데 연구 방법론에서도 관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갠즈(Gans, 1983)는 1970년대 미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뉴스 생산자 연구가 활발했던 이유로 (설문조사 등과 달리) 비용이 적게 들고 연구자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뉴스룸에 밀착하여(참여 관찰 등)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연구자가 가장 곱고럽게 생각하는 뉴스룸 참여 관찰 등 질적 연구가 오히려 가장 쉽고 간편한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다. 뒤집어 보자면, 그동안 한국의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시간 소모가 불가피한 질적 연구를 비용 소모(연구 예산)로 대체하는 양적 방법을 주로 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뉴스 생산자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의 활성화는 상당한 친연성을 지닌다.

셋째, 저널리즘 연구의 고정된 패턴을 극복하는 데 ‘글로벌 관점’도 필요하다. 이미 한국에서는 구글, 유튜브, 위키리크스 등 다양한 다국적 또는 해외 미디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각종 해외 언론에 대한 연구, 특히 이들 언론이 한국의 미디어 또는 언론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정파성, 공정성, 객관성 등 뉴스 원칙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자면, 한국과 미국의 언론에 등장하는 뉴스 원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쳤던 기왕의 연구를 넘어 한국 언론과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 일본 등의 언론과 어떻게 다른지,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경제적 급성장을 겪는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가 규모가 비슷하지만 여러 면에서 모범적 언론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유럽 국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넷째, 국내에 국한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장기적 추세와 변화를 살펴 미래의 함의를 제시하는 통시적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이슈에 대한 특정 신문의 기사를 내용 분석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이들 매체의 태도 또는 보도 방식이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하는 열의는 있어야 오늘날의 언론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는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저널리즘 연구의 고정된 패턴’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연구자의 상상 또는 기대 속에서만 존재했던 연구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의 영향력은 가히 ‘국가적’인데 국가적 의제에 영향을 주는 언론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려면 단순히 기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뉴스룸 내부의 의제설정 과정, 이에 대한 권력집단과의 관계, 광고주와의 연관성, 대중독자 집단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언론 현실에 대한 ‘국면적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언론 보도는 일상적 보도보다는

대형 재난 또는 전쟁, 전국 선거 또는 대형 스캔들 등 특별한 국면에 대한 집중보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높인다. 보통 몇 달씩 이어지는 이러한 특정 국면의 복잡하고 다양한 언론 현실에 주목하여 여러 이론 또는 개념을 적용해 보는 등 ‘유연하고도 역동적인’ 언론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 경력이 있는 저자가 단독 또는 공동 저자로 진행한 연구가 그렇지 않은 저자의 연구에 비해 ‘실천적 함의’와 ‘이론적 함의’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고 언론 경력이 있는 저자는 그렇지 않은 저자에 비해 ‘뉴스 생산자’ 또는 ‘뉴스 생산 조직’을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연구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언론 경력 연구자의 학문적·실천적 기여가 높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겠지만 저널리즘 연구의 진전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론학 ‘교육’의 혁신 차원에서든 언론인과 언론학계의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언론학 ‘연구’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뉴스 생산자 및 생산 조직 연구, 이에 대한 참여관찰 등 질적 연구, 장기간에 걸친 매체 역사 연구, 다양한 해외매체 또는 해외 언론 환경에 대한 연구 등을 보강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들과의 적절한 교류와 소통이 연구자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언론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언론학 ‘연구’의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학의 하위 분과 학문이지만 원래는 언론학의 뿌리에 해당하는 저널리즘 연구의 ‘비대칭적 연구’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뉴스 생산자 연구, 참여관찰 등 질적 방법론, 실천적 함의를 담은 연구, 뉴미디어 등 최신 언론 현실 연구, 통시적 연구, 해외 연구 또는 국가 간 비교 연구 등이 더 활성화될 때, 그리고 이를 통해 언론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저널리즘 연구의 비중과 수준을 높일 때, 언론학이 무엇을 왜 연구하는 학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정돈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개략적 동향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등의 구체적 동향과 변화를 상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적어도 1,200여 편의 저널리즘 연구 논문을 일일이 검토하여 한국 저널리즘 연구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론과 현실을 정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 참고문헌

- 강명구 (2009). 삶과 지식의 통합을 지향하는 언론학 교육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미래위원회 (편), <언론학교육의 길을 묻다> (1-8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진숙 (2008). 국내 인터넷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 '인터넷 비평' 유관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173-198.
- 김규환 (1983).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과거와 전망.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회고와 전망> (79-82쪽).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서울: 플라자호텔
- 김성태 (2005).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23호, 39-67.
- 김성해 (2007). 미디어와 교육: 언론인 전문화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7호, 7-42.
- _____ (2014). 언론학 교육 혁신을 위한 성공 조건. 한국언론학회 미래위원회 (편), <언론학교육의 길을 묻다> (162-185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희 (2005).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사 연구동향과 과제: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94-125.
- _____ (2012).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 교육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132-155.
- 김용학·김영진·김영석 (2008). 한국 언론학 분야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117-140.
-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0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과 쟁점 및 미래의 연구 방향: 한국의 연구 논문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126-162.
- 남궁협 (2013). 인문학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모색: '부정(否定)의 학(學)'으로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2호, 74-126.
- 문종대 (2001). 1990년대 이후 저널리즘 연구: 수요 전환의 위기. <한국언론학보>, 45권 특별호, 99-127.
- 박동숙 (2009). 한국의 방송학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방송학보>, 23권 2호, 141-186.
- 박은희 (2014). 디지털 변혁의 시대 한국의 언론학 교육 모델을 찾아. 한국언론학회 (편), <언론학 교육의 혁신 모델> (8~24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 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방송문화 연구>, 26권 2호, 33-66.
- 성옥제 (2012). 국내 미디어 다양성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개념 및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9호, 101-139.
- 송우천 (2001). 언론학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 <한국언론정보학보>, 17호, 61-84.
- 송종길·박상호 (2007). 국내 선거 관련 커뮤니케이션연구의 개관: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커뮤니케이션 수준,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3권 1호, 37-82.
- 송종길·황성연 (2009). 방송통신융합 시대 미디어 연구의 경향: 2000년 이후 기존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68호, 110-132.

- 신태범·권상희 (2013). 국내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분석 대상과 주제, 이론 및 방법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2호, 200-249.
- 안광식 (1989). 언론학회 30년의 과정 평가와 방향 모색. <한국언론학보>, 24호, 5-27.
- 안민호 (2005). 한국 언론학 연구의 이론 매트릭스: 1995년~2004년 한국언론학보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35-62.
- 양승목 (2005). 초창기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와 정체성 변화: 南玟 金圭煥 小考.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1~34.
- 우형진 (2005). 국내 인터넷 연구의 발전적 모색: 1995-2005년까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332-366.
- 우형진·박지연 (2011). 국내 인터넷연구의 발전적 모색 II: 2005-2010년까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7권 1호, 26-71.
- 원용진·황상현 (2011). 지역 방송 연구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0년부터 201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2호, 285-332.
- 유선영 (2014).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공통감각을 소실한 공생적 지식생산.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2호, 4-40.
- 윤석민·백영민 (2005).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191-226.
- 이건호 (2013). 저널리즘. 이건호·최윤정·안순태·차희원·임소혜 (편),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53~87쪽), 서울: 이화출판.
- 이승선 (2005). 언론 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227~262.
- 이영주·조세훈 (2004). 한국 언론학에서의 문화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과 일비판. <미디어, 젠더&문화>, 2호, 119~162.
- 이재경 (2005). 한국의 저널리즘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5-29.
- 임영호 (2009). 저널리즘 연구 50년의 성찰.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427-460쪽), 서울: 한국언론학회.
- _____ (2013). 한국 언론학의 제도적 성공담과 내재적 위기론.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1호, 6-38.
- 임종섭 (2014).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흐름 분석: 1995년부터 2012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권 1호, 67-102.
- 전범수·한상권 (2007). 한국 언론학 연구의 지식생산 연결망 구조.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197-215.
- 정인숙 (2006). 3대 언론 학술지에 게재된 방송정책연구에 대한 평가. <미디어, 젠더&문화>, 6호, 109-135.
- 정재욱 (2006).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서울: 영인본.
- 정재철 (2002). 90년대 이후 한국 방송학 연구의 성찰: 학회 학술지 게재 논문들의 주요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333-366.
- 조항제 (2014).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2호, 41-76.

- 최경진 (2007). 방송인력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의미 고찰: 대학 방송영상 교육의 지상과 방송3사 인력 운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7호, 100-138.
- 최현주·이강형 (2008). 지역 언론학 연구의 동향과 특성: 1960년~2008년까지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37-67.
- 황상재·박석철 (2004). 국내 인터넷 연구의 메타 분석: 연구 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권 2호, 68-92.
- 황용석 (2006). 한국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1호, 128-169.

- Bolkan, S., Griffin, D. J., Holmgren, L. J., & Hickson, M. (2012). Prolific scholarship in communication studies: Five Years in Review. *Communication Education*, 61(4), 380-394.
- Bunz, U. (2005). Publish or perish: A limited author analysis of ICA and NCA journals. *Journal of Communication*, 703-720.
- Emmers-Sommer, T., & Allen, M. (1999). Surveying the effect of media effects: a meta analytic summary of the media effects research.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5(4), 478-497.
- Faust, D., & Meehl, P. E. (2002). Using meta-scientific studies to Clarify of resolve question in the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69, 185-196.
- Gans, H. J. (1983). News media, news policy, and democracy: Research for the future.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174-184.
- Green, B., & Hall, J. (1984). Quantitative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37-53.
- Kramer, M. W., Hess, J. A., & Reid, L. D. (2007). Trends in communication scholarship: An analysis of four representative NCA and ICA journals over the last 70 years. *The Review of Communication*. 7(3), 229-240.
- Lasswell, H.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The communication of ideas. *Institute for Religious and Social Studies*, 37, 215-228.
- McQuail, D. (2000).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4th ed.), London: Sage Publication.
- Neuman, W. L. (2003). *Social research metho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5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Shoemaker, P. J., & Reese, S. D. (2013). *Mediating the message in the 21st century: A Media sociology perspective*. NY: Routledge.
- Trumbo, C. W. (2004). Research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 census of eight journals 1990-2000. *J & MC Quarterly*, 81(2), 417-436.
- Ye, L. & Ki, E. J. (2012). The status of online public relations research: An analysis of published articles in 1992~2009.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4, 409-434.
- Zelizer, B. (2004). *Taking journalism seriously: News and the academy*. CA: Sage Publication.

최초 투고일 2015년 10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26일

A Meta Analysis of Korean Journalism Studies: Focus on the Research Papers in 12 Journals(1990~2014)

Soo-Chan Ahn

Doctoral student, Korea University

Hae-Young Min

Doctoral student, Korea University

Ba-Ul Jang

Master student, Korea University

Jae-Yung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journalism research papers published for 25 years from 1990 to 2014 in 12 Korean major journalism-related academic journals, and conducted a cross-analysis on research theme, research method, research media, grounded theory, research implications etc by each journal and peri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of journalism is about 20% among the papers published in journalism journals for the past 25 years. Second, the research theme of the journalism studies were mainly focused on 'news contents', while the 'news producers' and 'news production organizations' were not much. Third, the main subject of journalism was shown yet to be newspaper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era of new-media. Fourth, the studies were mostly applying quantitative methods. Fifth, writers with journalism experiences showed to be more interested in 'news producers' and 'news production organizations' than writers who lacked experiences in journalism.

Keywords: journalism study, journalism identity, meta analysis,
historical analysis, diachronic analysis